



C. SCHUMANN

BRAHMS

BRITTEN

PIAZZOLLA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MISCHA MAISKY & LILY MAISKY

심장과 영혼에 관한 것, 그것이 마이스키의 음악이다 - theguardian

2022.4.29 FRI 7:30 PM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티켓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4/21(목)까지 예매시 조기할인 20%)

인터넷예매
티켓링크 1588.7890

현장예매
커피브라운 465.7730

주최 · 주관
군산시 군산예술의전당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 공연명 : 미샤 마이스키 첼로리사이틀
- 일 자 : 2022. 4. 29.(금) 19:30
- 장 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료 : R석 60,000원 S석 50,000원
(4/21 까지 예매시 20% 조기 할인)
- 관람대상 : 만 7세 이상 관람가
- 티켓예매 : 티켓링크(1588-7890) 커피브라운(465-7730)
- 할인정보
 - 20명 이상 단체할인예매 (20% 할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동반 1인 50% 할인
 - 등록장애인(1~6급) 본인 중증장애인(1~3급) 본인 및 동반1인 50% 할인
 - * 이외 기타 자세한 할인사항은 홈페이지 확인 *
 - ※ 모든 할인은 티켓수령시, 해당 증빙 카드 지참
-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객석 띄어 앉기를 운영합니다.

미샤 마이스키와 릴리 마이스키 부녀 듀오의 5년만의 한국 투어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피아니스트 릴리 마이스키가 오는 4월 29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리사이틀을 갖는다. 부녀 사이인 이들 듀오는 2017년 이후 5년만에 한국을 찾는 것으로 이번 공연에는 클라라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로망스와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을 첼로를 위해 편곡한 버전으로 연주하며 브리튼과 피아졸라의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도 미샤 마이스키의 딸인 릴리 마이스키가 반주를 맡으며 부녀의 음악적 소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